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<h1>보도자료</h1>	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포 : 2021. 4. 22.(목) • 스마트시티사업단 조대연 단장/정인회 선임연구원 • ☎ 02-798-9723 / 02-798-9724 • doholcho@kaia.re.kr / inhoejeong@kaia.re.kr 	
보도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월 23일(금) 11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	

국토진흥원,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확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과 손 잡는다!

-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진흥원)은 23일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(이하 보건산업진흥원)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날 체결식은 국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* 서울 용산 사무소에서 양 기관장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
 - * 스마트시티사업단 :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(이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)를 추진하고 있으며,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 구축과 도시(대구, 경기도 시흥) 실증을 목표로 함
-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개방형 데이터허브 및 실증연구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예정인 스마트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과의 데이터 연계 및 성과 공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- 국토진흥원은 그간 국내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의 중추로서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데이터허브의 분석 기술과 지자체 실증 노하우를 보건산업진흥원과 공유하고,
- 보건산업진흥원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에 연계하여 신규 스마트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,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실증도시 선정, 지자체 서비스 실증 및

향후 전국 시·도에 확산할 예정이다.

- 손봉수 원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은 우선순위가 높고, 파급력이 큰 보건복지 분야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, 돌봄 산업 분야 적용 확대로 데이터허브의 기술력이 더욱 높아질 것”이라며, “국토진흥원이 스마트시티 대표 전문기관으로서 스마트시티 표준모델 확산을 위해 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5,058억원('18년 기준)의 R&D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사업, 항공안전기술연구사업 등과 건설·교통 신기술 인증사업이 있다.